

일상 공개하고 콘서트 재개...설 틈 없는 임창정

부부 예능 '동상이몽2'에 고정 출연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톱10 올라
3년 만에 전국투어 '멀티버스' 시동
6월엔 LA서 단독 라이브 공연 개최

'멀티테이너' 임창정이 전방위 활동의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동안 나서지 못했던 무대 준비에 한창이다. 최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동상이몽2) 등 예능프로그램 활동도 재개하며 시청자와 거리감을 좁히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가족 일상 공개 화제

이달 초부터 '동상이몽2'에 아내 서하얀 씨 등 가족과 함께 나서고 있다. 그가 예능프로그램에서 일상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많은 부부 예능프로그램의 출연 요청을 거절해오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고정 출연을 결심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연하 서씨와 2017년 결혼에 골인한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전 부인과 사이에서 얻은 세 아들이 서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등 재혼가정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드러내 찬사를 받고 있다.

덕분에 임창정·서하얀 부부는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티코퍼레이션이 26일



가수 임창정이 6월 18일 경남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22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멀티버스'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 JG스타

발표한 4월 3주차(18~24일)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 9위에 올랐다. 이들의 출연 이후 프로그램은 6%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유지하며, CJ ENM의 콘텐츠 영향력 지수(CPI) '영향력 있는 예능프로그램' 4위에 랭크됐다.

●3년 만에 전국 투어 시동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각종 공연 섭외도 잇따르고 있다. 무대에 대한 갈증이 컸던 만큼 팬들을 만나는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6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한다. 이날 LA 폐창가 리조트의 대형 공연장에서 단독 라이브 공연을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6월 18일부터는 전국 투어 '멀티버스'(Multiverse)를 시작한다. 26일 소속사 에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경남 전주와 경기 안양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연다. 콘서트는 2019년 '임창정' 이후 3년 만이다. '내가 저지른 사랑', '그 때 또 다시' 등 히트곡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규 17집 '별거 없던 그 하루로'의 수록곡 무

대도 새롭게 펼친다. 이미 수록곡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에 안무를 곁들여 SBS MTV '더트롯쇼' 등 일부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신나는 분위기의 댄스곡으로 주목받으면서 각종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 진입하는 등 '역주행' 인기도 거두고 있다.

가요제작자로서도 나선다. 2년 넘게 공들여 직접 제작한 신인 걸그룹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말 데뷔를 목표로 최근 막바지 음반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화부터 드라마까지...열도 점령한 한국 배우들

日 대표 감독들의 러브콜 잇따라
송강호, 영화 '브로커' 주연 맡아
정해인은 드라마 '커넥트'에 출연
"세계 주류문화 K콘텐츠 저력 입증"

일본의 대표적 감독들이 한국배우들과 잇달아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흐름과 달리 세계 주류문화로 올라선 케이(K) 콘텐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어느 가족'으로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영화 '브로커'로 5월 다시 칸으로 날아간다. 각본에만 무려 5년의 시



일본의 유명 감독과 한국 배우·제작진의 합작 사제가 잇따르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송강호·강동원 주연의 '브로커'를,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박유람·진대연 등이 출연한 '드라이브 마이 카'(왼쪽부터)를 내놔다.



일본의 유명 감독과 한국 배우·제작진의 합작 사제가 잇따르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송강호·강동원 주연의 '브로커'를,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박유람·진대연 등이 출연한 '드라이브 마이 카'(왼쪽부터)를 내놔다.

간을 투자한 것으로 감독은 송강호·강동원·배두나·아이유 등 한국배우들을 내세웠다.

'퍼스트 러브', '신이 말하는 대로', '악

의 교전' 등을 연출한 미이케 다카시 감독도 지난해 한국 제작진·배우들과 함께 드라마 '커넥트' 촬영을 완료했다.

정해인과 고경표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는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이 원래 '주인'과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기를 노는 중이다.

지난달 미국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받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도 박유람·진대연·안휘태 등 한국배우들이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하마구치 감독은 당초 부산에서 촬영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일본 히로시마로 무대를 옮겨 완성했다.

●"한국의 제작 방식 배우고 싶다"

일본 감독들의 '한국행'이 이처럼 찾아진 것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영상 콘텐츠가 해외무대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힘이 더욱 강해진 데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제작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1990년대에 이후 오리지널 각본의 부재, 폐쇄적인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한 일본 영화산업의 하향세도 한 배경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018년 '다키스트 아워'에 이어 2019년 '밤엘'로 아카데미 부장상을 받은 특수분장 아티스트 가즈히로 츠지는 "꿈을 이루기 어려운 일본의 시스템과 문화가 싫다. 그래서 난 일본을 떠났고 미국으로 왔다"며 일본의 제작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영화 '친구' 광경택 감독 "30년 만의 단편영화" 개그맨 박성광·김영희, 영화 감독으로 데뷔

티빙 '전체관람가+'서 제작기 공개

"단편영화? 대학 졸업 이후 30년만!" 영화 '친구'의 광경택 감독이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전체관람가+:숏버스터'(전체관람가+)를 통해 새 도전에 나선다. 대표작인 '친구'를 비롯해 15편이 넘는 장편 영화를 만든 광 감독은 '전체관람가+'로 단편영화 '스쿨카즈'를 내놓는다. '전체관람가+'는 2017년 JTBC '전체관람가'의 포맷을 5년 만에 OTT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찬실이는 복도 많지' 김초희, '보이스'의 김국·김선, '쇼셜피비아' 홍석재 감독 등도 참여한다.

광경택 감독은 '평행 세계'를 주제로 28일 단편영화와 제작현장 풍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 작가 지망생의 학교 이야기를 그린다. 광 감독은 26일 온라인 제작



광경택 감독

발표회에서 "장편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스스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사뭇 힘들었다"면서 "패기 만만했던 영화학도 시절로 돌아가는 과정이 새로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연은 지난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조병규가 오디션을 통해 맡게 됐다. 광 감독은 "주로 나이 있는 배우들과 함께하다 신인들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조병규가 잘 해줬다"고 높이 쳤다. 이를 지켜본 '전체관람가+'의 진행자 윤종신과 문소리, 노홍철은 "좋은 창작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위해 모일 수 있는 무대이다. 시즌제로 계속 제작되길 바란다"며 콘텐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개그맨 박성광과 김영희가 코미디 무대가 아닌 영화로 관객을 만난다. 이경규, 심형래 등 선배들에 이어 코미디와 영화 연출이라는 두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성광은 1월 첫 장편영화 '웅남이'의 촬영을 모두 마치고 후반작업에 한창이다.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쑥과 마늘을 먹고 진짜 사람이 돼 사라진 쌍둥이 반달곰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연 박성광을 비롯해 최민수, 유재문, 오달수, 이이경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박성광은 "보여 줄 게 많은 연출자"라며 "나중에 (박성광의 영화 연출에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은 후회할 거다. 박성광이 이런 (흥분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놀라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아방송예술대에서 영화예술학을 전공한 박성광은 앞서 세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2017년 선보인 두 번째 연출작 '슬프지 않아서 슬픈'으로 미추홀 필름페스티벌, 한중국제영화제, 서울 세계단편영화제 등에서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김영희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패러디한 성인영화 '기생촌'을 선보이며 연출자로 데뷔했다. 지난달에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플릭스에 코믹 성인영화 '특이점이 온 사랑'과 '무릎팍 보살'을 연이어 공개했다. 비플릭스는 자체 플랫폼 주간 톱10에 진입한 '무릎팍 보살'이 "신규 구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영상제작학과를 나온 김영희는 "영상 전공자로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하나의 장르로서 성인영화 연출에 도전했다. 독립영화 시나리오도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슈가, 싸이 정규 3집 공동 프로듀싱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가수 싸이의 정규 3집 타이틀곡 '댓 댓'(That That)을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고, 싸이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듀싱했다. 슈가는 26일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을 통해 "처음에는 (싸이가) 대선배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릴 적 친구와 작업을 하는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했다"며 "절친 아닌 절친이 돼 버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싸이도 "슈가는 후배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같이 친한 느낌이 있다. 나이 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발표하는 9집에는 성시경, 헤이즈, 크러쉬, 타블로, 화사 등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문수진 감독의 애니메이션 '각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배급팀 씨앗

문수진 감독 단편 애니 '각질' 칸 영화제 초청

문수진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각질'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칸 국제영화제 공식 섹션에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4개국에서 출품한 3507편의 애니메이션 중 '각질'을 포함해 9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디 워터 머머스'(중국), '호수의 방화'(프랑스), '제임 올드'(미국) 등의 작품과 함께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다. '각질'은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를 각질에 비유해 풀어낸 작품으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등에도 공식 초청됐다.

'SM타운 라이브' 8월 도쿄돔서 오프라인 개최

SM엔터테인먼트(SM)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SM타운 라이브 2022'가 3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다. 25일 S M에 따르면 'SM타운 라이브 2022'는 8월 27,2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감타, 보아, 뽕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효연, 샤이니 윤유·키·민호, 엑소 수호·첸·카이, 레드벨벳, NCT, 에스파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SMCU 익스프레스'라는 부제로 SMC U 익스프레스호(號)를 타고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콘셉트로 열린다.

비비지, 美 '그래미 글로벌 스피ن' 무대 공개

그룹 비비지가 케이(K)팝 그룹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글로벌 스피ن' 무대를 공개한다. '그래미 글로벌 스피ن'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이자 권위 있는 음악상으로 평가받는 그래미가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공연 시리즈이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따르면 비비지는 한복을 입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데뷔 음반 타이틀곡 '밥 밥!'(BOP BOP!)을 선보인다. 비비지는 이번 무대를 계기로 28일 '밥 밥!'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에 나선다. 그레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서도 비비지의 트위터 포스트를 리트윗하는 등 이벤트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혐의' SF9 찬희·휘영 기소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SF9의 찬희와 휘영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두 사람에게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이른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18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지인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